



# CME의 NYMEX 인수 추진 및 향후 재편 방향

올해 들어 미국의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선물거래소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원유 및 귀금속 거래에 주력하고 있는 뉴욕상업거래소(NYMEX) 인수를 추진하면서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등 여타 거래소들도 인수합병 경쟁에 뛰어들 태세임. 향후 중소형 거래소들이 기술개발에 요구되는 과중한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거래소들과의 사업결합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1월 28일 시카고상업거래소(CME)는 원유 및 귀금속 선물거래에 주력하고 있는 뉴욕상업거래소(NYMEX)를 약 110억 달러에 인수하기 위해 30일간의 우선협상권을 확보했다고 공표함.
  - 이미 시카고상업거래소는 지난해 7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를 116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으며,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결합회사는 시가총액이 600억 달러에 달해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임.
  - 현재 제시된 인수조건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 주주들은 주당 36달러의 현금과 시카고상업거래소의 주식 0.1323주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뉴욕상업거래소의 주당 가격을 117.08달러로 산정한 것으로 총 인수금액은 108억 7,000만 달러에 달하게 됨.

〈표 1〉 최근 글로벌 거래소간 인수합병 현황

시기	대상(국적)	인수자(국적)	인수금액(달러)
2006년 10월 17일	CBOT(미국)	CME(미국)	116억
2006년 5월 22일	Euronext(네덜란드)	NYSE(미국)	102억
2007년 9월 20일	OMX(스웨덴)*	Nasdaq(미국)	47억
2007년 4월 30일	ISE(미국)	Deutsche Börse(독일)	27억
2007년 6월 23일	Borse Italiana(이탈리아)	LSE(영국)	26억
2007년 9월 20일	LSE(지분 28%, 영국) <sup>1)</sup>	Borse Dubai(UAE)	16억
2007년 9월 20일	LSE(지분 20%, 영국)	QIA(카타르)	13억
2006년 9월 1일	NYBT(미국)	ICE(미국)	11억

주 : 1) \*는 진행 중임.

2) Borse Dubai는 Nasdaq와 OMX의 합병회사 지분 19.99%를 인수하기로 되어 있음.

3) ISE(International Securities Exchange), NYBT(New York Board of Trade), ICE(IntercontinentalExchange)

- 시카고상업거래소는 시카고상품거래소 인수를 계기로 농축산물 및 금융 선물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상업거래소마저 끌어들이 경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에너지 시장은 물론 동 거래소 산하의 상품거래소(Comex)와의 통합을 통해 금이나 은 등 귀금속 거래에 있어서도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됨.



- 원유, 가스, 난방유 등 뉴욕상업거래소의 일부 대표상품들이 이미 시카고상업거래소의 전자거래시스템인 Globex(Global과 Exchange의 합성어)에서 거래되고 있어 기술적 관점 등에서도 양대 거래소간의 통합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특히 시카고상업거래소 입장에서 최근 들어 시장지분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에틀랜타의 에너지전자거래소인 ICE를 견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됨.

■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도 유럽 통합거래소인 Euronext와의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들어 아메리카증권거래소(American Stock Exchange)를 2억 6,0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스톡옵션 및 상장지수펀드(ETF), 소규모 상장기업 부문 등의 거래기반을 강화함.

- 상기 우선협상이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 NYSE는 물론 Nasdaq 등 여타 거래소들이 인수합병에 뛰어들면서 경쟁구도가 한층 가열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법무부는 상기 CME와 NYMEX의 결합에 있어 반독점금지 위반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나 이번 인수합병은 이전 CME와 CBOT의 경우와 달리 중복되는 거래상품이 거의 없어 별다른 저촉사항이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다만 증권거래위원회(SEC)로서는 CME의 독과점적 지위남용에 의한 수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입장임.

〈표 2〉 CME와 NYMEX의 사업개요 비교

	CME Group	NYMEX Holdings
설립	지난 1898년 Chicago Butter and Egg Board가 개설되면서 설립된 후 1919년에 현재 명칭으로 바뀜.	지난 1872년 Butter and Cheese Exchange of New York으로 출범한 후 1882년에 현재 명칭으로 정착됨.
성장경위	2000년 11월 탈상호회사화를 거쳐 2002년 12월 주식을 상장하고, 지난해 CBOT와의 통합으로 CME Group으로 거듭남.	1994년 8월 Comex와의 합병 이후 2006년 11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됨. 세계 최대의 상품선물거래소로서 에너지와 귀금속에 특화하고 있음.
거래규모	14억 달러(2006년 기준)	2억 9,500만 달러(2006년 기준)
거래방식	공개호가방식과 전자거래방식(약 70%는 Globex를 통해 이루어짐.)	NYMEX(에너지, 백금, 팔라듐)와 Comex(여타 귀금속)로 분리, 전자거래시스템 Clearport를 통해 거래·청산
입회장 또는 상품	2개(외환 및 금리 파생금융상품, 농산물 및 주가지수 파생금융상품)	알루미늄, 석탄, 동, 원유, 전기, 가솔린, 금, 난방유, 천연가스, 팔라듐, 백금, 프로판, 은, 우라늄

■ 향후 중소형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전자거래의 편리성 및 속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구조하에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주식 및 각종 파생금융상품 등을 망라하여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통합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주 고객인 투자은행들이 거래소시장의 과점구조화 진전에 따른 가격결정력 강화를 우려하여 자체적인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한층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